

칠레 문학 수용: 칠레 쿠데타 서사와 한국의 지적 계보

우 석 군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우석군(2019), 「칠레 문학 수용: 칠레 쿠데타 서사와 한국의 지적 계보」,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0(3), 231-257.

초 록 칠레 쿠데타는 한국 사회에 지속적이고 강렬하게 기억되고 있다. 칠레 문학에 대해서도 칠레 쿠데타 서사를 축으로 하는 독자 기대지평선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출판사들도 번역 작품을 선정할 때 칠레 쿠데타 서사의 유무를 고려하고, 전공자들도 이 경향을 굳이 배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뿌리는 1968년에 시인 김수영이 네루다 시를 처음으로 번역했을 때, 또 그보다 먼저 찰스 라이트 밀스의 『들어가, 양키들아』를 발견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틴아메리카를 수용하는 하나의 지적 계보,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수용하는 하나의 방식이 일찌감치 결정된 것이다. 이 계보는 김남주가 이어받고 더 확고하게 가시화시켰다. 그가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이념적 급진화를 이미 1970년대에 예비한 지식인이자 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라틴아메리카 지식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1980년대에 대학 시절을 보낸 전공자들을 1960년대의 지적 계보에 연결시켜 주는 가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칠레 쿠데타 서사의 선호는 단순히 한국의 군부독재와 칠레의 군부독재에 대한 공통의 경험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와 라틴아메리카 현대사를 동일시하는 지적 계보에서 기원을 찾아야 한다.

핵심어 칠레 문학 수용, 칠레 쿠데타 서사, 김수영, 『들어가, 양키들아』, 김남주

I. 기억의 지속

최근에 한 국내 출판사가 『아옌데 시대』(*Los años de Allende*, 2015)라는 정치 만화의 번역 자문을 해왔다. 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의 칠레의 긴박한 정치 상황을 다룬 만화였다. 거의 반세기 전의 칠레 쿠데타가 이토록 지속적으로 기억되는 것도 놀랍고, 만화까지 번역 대상이라는 점도 놀랍다. 기억의 지속에 대한 놀라움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2018년에는 J. 패트리스 맥셰리(J. Patrice McSherry)의 『칠레 누에바 칸시온: 음악의 정치적 힘, 1960-1973년』(*Chilean New Song: The Political Power of Music, 1960s-1973*, 2015)의 번역을 의뢰받았다. 한국에서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ón)은 빅토르 하라(Víctor Jara)의 비극적 최후, 즉 쿠데타의 참상과 결부되어 수용되었다. 그의 부인인 조안 하라(Joan Jara)가 쓴 『빅토르 하라: 아름다운 삶, 끝나지 않은 노래』(*Víctor, Unfinished Song*)는 1988년과 2008년 두 차례 번역되었을 정도이다. 누에바 칸시온에 대한 기억은 곧 칠레 쿠데타에 대한 기억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기억의 지속은 칠레 문학 수용에도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Antonio Skármeta)의 『네루다의 우편배달부』(*El cartero de Neruda*)와 로베르토 볼라노(Roberto Bolaño)의 『칠레의 밤』(*Nocturno de Chile*)을 번역할 때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번역된 칠레 문학 작품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다. 라틴아메리카 문학 수용의 역사에서 이처럼 개별 국가, 개별 사건이 주목받은 예는 흔치 않다. 칠레 쿠데타 서사에 대한 국내 출판사들의 선호가 분명 존재하고, 한국 독자들 사이에도 독특한 기대지평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칠레 쿠데타에 대한 기억이 지속되는 이유는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뽀초체프만큼이나 장기집권한 대통령이 있었고, 그의 사후에 학살극을 벌이고 집권한 또 다른 군부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쿠데타’, ‘군부독재’, ‘학살’, ‘장기집권’, ‘철권통치’라는 공통의 경험이 칠레 쿠데타를 한국의 비극적 현대사에 자연스럽게 오버랩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이 칠레 쿠데타에 대한 기억의 지속에, 나아가 칠레 문학의 한국 수용에 커다란 영향을 끼

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지성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저 공통적인 쿠데타의 경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결론 내린다면,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한 사회는 냉전의 산물인 한국전쟁의 여파로 이념청소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회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루다 같은 공산주의자 시인의 수용이, 그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전인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는 냉전하의 분단체제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모색은 일종의 제3세계 의식의 발현에 따른 것이었고, 이는 1970년대의 제3세계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980년대의 이념적 급진화 현상 속에서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현대사의 오버랩 현상으로 귀결되었다.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다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군부쿠데타라는 한국과 칠레의 공통의 경험이 칠레 쿠데타 서사를 찾게 만들었고, 이를 매개로 한 특이한 독자 기대지평선이 성립된 것이다.

이 글은 먼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칠레 문학 수용에서 칠레 쿠데타 서사에 대한 기대지평선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개괄할 것이다. 그다음에는 1960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제3세계 의식에 입각한 한국 지성사의 계보를 추적함으로써, 칠레 문학 수용의 뿌리를 규명할 것이다.

II. 한국 독자의 기대지평선과 칠레 쿠데타 서사

1980년대까지 한국에 의미 있는 수용이 이루어진 칠레 문인은 사실상 빠블로 네루다(Pablo Neruda)뿐이다. 네루다보다 먼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브리엘라 미스트랄(Gabriela Mistral)도, 네루다와는 다른 문학적 계보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니카노르 빠라(Nicanor Parra)도 한국에 남긴 흔적은 미미하다. 그나마 빠라는 두 권의 시집이 번역되었지만, 결국 대중성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시선집인 『아가씨와 죽음』이 1995년에 발간되었지만 거의 외면받았고, 뒤늦게 2017년에야 번역된 그의 대표작 『시와 반시』(*Poemas y antipoemas*)도 의

미 있는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시와 반시』는 라틴아메리카 문학 전공자의 번역이 아닌데도, 번역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다. 라틴아메리카 문학 전공자도 많지 않고, 시 전공자와 칠레 문학 전공자는 더더군다나 손에 꼽을 정도인 국내 현실 때문이다.

이에 비해 칠레 소설은 운이 좋아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작품들 중에서 대중성을 획득한 것들이 있다. 한국 독자들 사이에 칠레 쿠데타 서사에 대한 독특한 기대지평선이 그 이전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의 번역 동기와 출판 과정을 되짚어보면 이 기대지평선의 존재가 확인된다. 필자가 처음 이 소설을 접한 것은 1994년이였다.¹⁾ 단숨에 읽었을 만큼 소설에 매료되었고, 한국 독자의 기대지평선에 맞으리라고 판단했고, 기회가 되면 번역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기대지평선에 맞으리라는 판단 근거는 사실 막연했다. 7년째 유학 중이었고, 번역 이력도 없어서 국내 출판시장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든 까닭은 이 소설이 ‘네루다’와 ‘쿠데타’를 키워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소설을 읽는 재미, 시와 정치의 혼치 않은 성공적인 조합 등도 돋보였지만,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마저 쿠데타에 속절없이 분노하며 죽어가는 비극적 카타르시스가 압권이었다. 필자의 확신은 대학 시절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종속이론과 해방신학 등의 라틴아메리카 지식이 처음으로 한국 학계의 의미 있는 관심을 받고 있던 1980년대 중반에 대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필자 자신이 한국과 칠레의 현대사를 자연스럽게 오버랩시키는 세대에 속했던 것이다.

1995년 귀국하고 맡은 첫 강의에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를 다루었고, 학기가 끝난 뒤 번역을 시작했고, 다음 해 초쯤에는 초벌 번역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출판시장에 문외한이다 보니 큰 오류를 범했다. 스카르메따가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고 영화 <일 뽀스띠노>의 상업적 성공을 모르고 있던

1) 아직 제목이 ‘불타는 인내’(Ardiente paciencia)이던 때였다. 영화 <일 뽀스띠노>(Il postino, 1994)의 성공 이후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로 제목이 바뀌었다.

터라, 판권 확보와 출판사 접촉을 초벌 번역 작업 이후로 미룬 것이다. 그런데 1996년 초에 <일 뽀스피노>가 국내에 개봉되어 호평을 받자, 신속하게 판권을 확보한 출판사가 있었다. 혹시나 번역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면 기회가 있을까 싶어 출판사 담당자와 만났다. 이미 역자가 선정되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는데, 더 안타까운 일은 따로 있었다. 그 담당자가 여고생과 여대생, 특히 여고생을 내포독자로 생각하고 표지, 삽화, 문체를 고민 중이라는 것이었다. 마리오와 베아트리스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소설은 칠레 쿠테타나 네루다를 알고 있거나, 그 무거운 역사에 공감할 수 있는 이들이 주 독자가 되리라는 의견을 냈다. 몇 달 후 책이 나왔는데, 편집자의 구상대로였다. 책은 그다지 많이 팔리지 않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출판사는 연장계약을 포기했다. 몇 년 후 민음사가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에 관심을 가지고 필자에게 번역을 의뢰했고, 민음사는 소녀적 감수성에 기대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4년 출간되어 오늘날까지도 1년에 2,000부 이상 꾸준히 팔리고 있다. 한국 출판시장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 정도면 스테디셀러이다.

판매의 성공 여부가 전적으로 내포독자 예상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갈린 것은 분명 아니다. 민음사는 그 무렵에 이미 외국문학 전문 출판사의 절대강자 중 하나였고,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는 이 출판사의 대표 상품인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되는 행운을 누렸다. 또 인터넷 공간이나 대중강연에서 접한 독자 반응을 보면, 순전히 칠레 쿠테타 서사라는 이유로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리오처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일개 우편배달부가 네루다 같은 대문호와 우정을 맺고, 시 세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그의 메타포들을 사용해 사랑을 쟁취한다는 낭만적이고 인간적인 설정이 ‘네루다’와 ‘쿠테타’ 같은 키워드들 못지않게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하였다. 또, “온 세상이 다 무엇인가의 메타포”(스카르메타 2004, 32),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스카르메타 2004, 85) 등의 구절들처럼 시를 규정하는 대목도 인상 깊었다는 평이다. 메타포를 둘러싼 마리

오와 네루다의 대화는 ‘은유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도 포함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 쿠데타 서사이고, 한국에 상당히 알려져 있는 네루다의 비극적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네루다의 우편배달부』가 한국에서 지속적인 독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커다란 요인이라는 견해는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바람의 노래 혁명의 노래』라는 라틴아메리카 음악 여행기를 출판하면서 겪은 일 때문이었다. 이 책은 누에바 칸시온, 누에보 칸시오네로(Nuevo Cancionero), 탱고, 안데스 음악을 주로 다루었다. 집필 계획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선 개인 블로그에 올려둔 글들을 본 한 출판사 편집자가 출판 제안을 해서 2005년에 완성시킨 책이다. 여행 순서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순이었는데, 편집자는 칠레 부분을 대단원으로 삼아 맨 뒤에 두자고 제안했다. 또 필자가 구상한 ‘안데스 맵인악사의 하프’라는 제목도 ‘바람의 노래 혁명의 노래’로 바꾸자고 요청했다. 구성과 제목 모두 누에바 칸시온을 염두에 둔 의견이었다. 안데스 음악 CD를 제작 중이던 음반사와 공동 마케팅 계획이 있어서 난색을 표했지만, 편집자의 논리에 그만 지고 말았다. 책의 내용에 칠레 쿠데타와 누에바 칸시온 부분이 그나마 한국 독자에게 친숙하다는 논리였다. 필자가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를 처음 출판한 출판사 편집자에게 펼친 논리였으니,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이처럼, 다른 장르의 책에서도 칠레 쿠데타 서사의 유무는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물론 칠레 쿠데타 서사가 반드시 좋은 반응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미스트랄과 빠라만쿠이나 우리나라에서 불운했던 소설가인 호세 도노소(José Donoso) 경우를 보면 그렇다. 『광야의 집』(*Casa de campo*)과 『무한지대』(*El lugar sin límites*)가 각각 1998년과 2009년에 번역되었으나 반향은 없었다. 출판사의 역량이 떨어지는 점이 분명한 문제였고, 번역 경험이 많은 역자들이 아닌 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광야의 집』은 쿠데타에 대한 희대의 알레고리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것이다.²⁾ 인민연합의 실패 원인을 성찰한 폴리 델라노(Poli Délano)의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En este lugar*

sagrado)도 별로 반향이 없었다. 텔라노가 국내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학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인지도 높은 작가가 아니고, 출판사도 라틴아메리카 관련해서는 별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 같다. 반면, 루이스 세뵐베다(Luis Sepúlveda)는 가장 운 좋은 칠레 소설가이다. 칠레 쿠데타 서사와 사실상 무관한 작가이고 국내 학계가 주목한 작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린책들이라는 문학 전문 출판사로서 위상이 높은 출판사의 선택을 받았다. 더구나 이 출판사는 번역대상 작가를 선정하면 전집 번역이라는 출판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 『연애소설 읽는 노인』(*Un viejo que leía novelas de amor*)을 필두로 현재까지 15권이 번역되었다. 『연애소설 읽는 노인』은 판매 성적도 제법 좋았다. 다만 열린책들 이전에 세 군데 출판사가 각각 세뵐베다의 작품 1권씩을 번역했고, 그중 유왕무가 번역한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Historia de una gaviota y del gato que le enseñó a volar*)는 2015년 국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현재 칠레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이처럼 저자, 작품, 출판사, 역자, 학계 평가, 영화화, 교과서 수록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칠레 쿠데타 서사가 출판사의 작품 선정과 판매에 끼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가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다른 칠레 작품들의 수용 상황을 보면 세뵐베다 사례는 예외적이고, 칠레 쿠데타 서사에 대한 한국 독자의 기대지평선이 일정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우선 스까르메따의 다른 작품들의 운명이 이에 따라 갈렸다. 국내 외국문학 출판사의 또 다른

- 2) 호세 도노소는 칠레 문학에서 리얼리즘을 극복한 대표적인 소설가로 꼽힌다. “스스로를 가리키는 문학”(literatura que se señala a sí misma)으로 요약되는 그의 문학관은(Donosó 1991, 41) 그가 속칭 ‘어려운 작가’로 인식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나 『광야의 집』은 그의 이전 작품들과는 달리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쓴 소설이다. 1978년에 발표된 이 소설이 탈고 때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다 하니, 쿠데타 직후부터 쓰기 시작한 셈이다. 현실을 직접 지시하는 문학을 지양하던 도노소에게는 대단한 결정이었다. 그러면서도 도노소는 지나친 현실 개입을 자제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 결과가 그 자신이 인정하듯, 19세기 소설풍의 문체를 이용하되 알레고리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었다(Sarrochi 1992, 211-212). 바로 이 선택이 『광야의 집』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1980년대 이전의 다른 칠레 쿠데타 서사들은 쿠데타에 대한 참담한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인지 현실이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자인 문학동네에서 간행된 『빅토리아의 발레』(*El baile de la Victoria*)는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의 성공과 이에 따른 스까르메타의 인지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 반면, 어린 소년에게도 지켜야 할 비밀을 만들어내는 군부독재 시대의 억압적 상황을 다룬 『글짓기 시간』(*La composición*)은 호평을 받았다.

민음사의 세계문학전집을 보면 칠레 쿠데타 서사가 출판사의 출판정책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출판사 측의 회고에 따르면, 1998년부터 출시된 이 시리즈는 처음 5년은 고전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10). 그러나 그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2006년에는 홈쇼핑을 통해서도 판매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한겨레21 2006), 10여 개 출판사를 전집 시장에 처음으로 혹은 다시 뛰어들게 만들었으며(한겨레 2010),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점유하면서 2019년에 400권을 돌파했고, 누적 판매 부수는 1,700만부에 이르렀다. 따라서 『네루다의 우편배달부』가 이 전집의 제104권으로 간행된 일은 어느 정도의 판매를 보장해주는 일이었다. 더구나 한국의 역대 세계문학전집 중 최초로 라틴아메리카 소설을 어느 정도 포함시킨 전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작품들은 라틴아메리카 소설로서의 대표성을 획득한다. 물론,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은 그 이전의 전집들에 비해 출판사가 작품 선정에 더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이런 유의 전집에서 한국 최초로 출판 산업의 논리가 작품 선정에 강력하게 개입되었다는 평가가(조영일 2010, 347-348)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정전에 관한 라틴아메리카 문학 전공자들의 판단 기준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문학전집이 한국에서 지니는 의미를 생각하면, 일반 독자들은 이 전집의 작품들을 세계문학의 정전으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 근대화 과정에서 뒤처져 오랫동안 서구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던 한국인에게 세계문학전집은 문명, 보편성, 교양, 고전 등의 습득 통로였다. 이 역사는 신조사라는 일본 출판사의 세계문학전집이 상업적 대성공을 거두어 조선 독자들에게도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킨 1927년, 즉 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1950년대 후반부터 정음사와 을유문화사 등이 주도한 세계

문학전집 발간 경쟁도 서구 콤플렉스로 인해 빚어진 일이었다.³⁾ 세계문학전집은 시스킨드가 말하는(Siskind 2014) “세계주의 열망”(cosmopolitan desire)의 한국식 발현이자, 한국 문학장에서 제도화된 형식인 것이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 처음 포함된 칠레 작가는 이사벨 아옌데(Isabel Allende)이다. 해외에서 그의 엄청난 상업적 성공은 한국 출판계에도 비교적 빨리 알려진 듯하다. 1990년을 전후하여 5, 6곳의 군소 출판사가 이미 해적판을 냈다. 그러나 대부분 역자도 밝히지 않은 채 번역본을 냈으니 존평할 만한 가치는 없다. 아옌데에 대한 제대로 된 최초의 번역서는 한길사에서 황병하를 역자로 하여 1991년에 낸 『에바 루나』(*Eva Luna*)이다. 그리고 민음사가 2000년부터 비소설인 『파울라』(*Paula*)를 필두로 하여, 『영혼의 집』(*La casa de los espíritus*), 『세피아빛 초상』(*Retrato en sepia*), 『조로』(*El Zorro: comienza la leyenda*), 『운명의 딸』(*Hija de la fortuna*) 등을 연달아냈다. 이들 중에서 『영혼의 집』이 『네 루다의 우편배달부』보다 앞서 2003년에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되어 두 권으로 출판되었다. 아옌데 이전에 이 시리즈에 포함된 작품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의 『백년의 고독』(*Cien años de Soledad*)과 마누엘 뿌이그(Manuel Puig)의 『거미여인의 키스』(*El beso de la mujer araña*)가 유일했다. 다만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경우는 민음사가 세계문학전집 출시 이전인 1994년에서 1997년 사이에 주요 단편들을 다섯 권으로 묶어 이미 번역했다. 보르헤스와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미 한국에서 확고한 명성을 획득한 작가들이었다. 가령, 2005년 서울대학교 『권장도서 해제집』에 포함된 100권의 도서 중에서 외국문학 작품이 32편 선정되었는데, 스페인어권 작품으로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 보르헤스의 『픽션들』만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아옌데와 스까르메타가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된 것은 세르반테스, 보르헤스, 가르시아 마르케스에 버금가는 작가들이라는 착시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을 일이었다.

3) 한국인의 서구 콤플렉스와 독서 습관, 이 풍토에서 발간된 세계문학전집의 식민적 역할에 대해서는 박숙자(2012; 2014)를 참조하라.

물론 뿌이그, 아옌데, 스카르메파의 소설이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된 것은 영화화된 작품들이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가 간행된 같은 해에 라우라 에스끼벨(Laura Esquivel)의 『달콤 씹싸름한 초콜릿』(*Como agua para chocolate*)도 전집에 포함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출판산업의 논리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음사는 네루다를 높이 평가했고 시집도 낸 적이 있다. 또 보르헤스의 역자로 민음사와 관계를 맺었던 황병하가 이사벨 아옌데 예찬론자였다(황병하 1992, 276-277). 출판산업의 논리만으로 『영혼의 집』과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를 세계문학전집에 포함시켰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작품 선정 과정에서 칠레 쿠데타 서사의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로베르토 볼라뇨(Roberto Bolaño)에 얽힌 일화는 칠레 쿠데타 서사의 중요성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 필자는 2006년 전후에 민음사에게 볼라뇨의 『2666』(2666), 『야만스러운 탐정들』(*Los detectives salvajes*), 『칠레의 밤』(*Nocturno de Chile*), 『먼 별』(*Estrella distante*)의 검토를 의뢰받았다. 이들 중에서 우선 번역할 작품의 선정에 참고하겠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야만스러운 탐정들』과 『칠레의 밤』을 우선 추천했다. 『칠레의 밤』이 한국 독자의 기대지평선에 부합되는 매력적인 칠레 쿠데타 서사이면서도, 독재자가 아니라 지식인 부역자를 다룬다는 점에서 참신한 독재소설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볼라뇨가 칠레 태생 작가라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다. 게다가, 훌리오 코르타사르(Julio Cortázar)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멕시코 분위기도 물씬 나는 『야만스러운 탐정들』을 더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훗날, 이 작품을 “『가장 청명한 지역』(*La región más transparente*) 이후 최고의 멕시코 소설”, “새로운 『팔방놀이』(*Rayuela*)”(Herralde 2005, 16), “까팔루냐에 거주하는 칠레인이 쓴 최고의 멕시코 현대소설”(Herralde 2005, 24)이라고 기술하는 대목들을 읽고 전적으로 공감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민음사의 선택은 『칠레의 밤』이었다. 당시로서는 최초의 볼라뇨 번역 시도였기 때문에 한국 독자에게 친숙한 서사가 담긴 작품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계약을 둘러싼 혼선이 있어서 상기 작품들은 열린책들에서 출간되었다. 열린책들은 전집 출간 정책에 따라, 이미 을유문화사와 계약된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거의 모든 볼라노 작품을 번역했다. 그런데 한국 독자들의 선택은 『칠레의 밤』이어서 『야만스러운 탐정들』과 『2666』 같은 대표작들보다 판매 결과가 더 좋았다.⁴⁾ 『칠레의 밤』과 『야만스러운 탐정들』을 번역했지만, 후자를 더 볼라노다운 작품으로 평가하는 필자로서는 다소 당혹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야만스러운 탐정들』과 『2666』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비슷한 분량의 다른 소설들과 비교했을 때, 『칠레의 밤』은 분명 한국 출판시장에서 더 환영받았다. 이 소설에 대한 문인 장정일의 서평은 칠레 쿠데타 서사가 한국 독자들의 독서 선택에 끼치는 영향을 다시금 짐작하게 해준다. 「MB의 연설 원고를 쓰는 그 작가는 누구인가?」라는 서평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 소설이 독재자 소설이 아니라 지식인 부역자 소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다. 그러나 빼도 체프의 이름과 함께 한국의 역대 독재자내지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의 이름을 특별히 열거함으로써(장정일 2011) 양국 현대사를 더 명확하게 오버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아리엘 도르프만(Ariel Dorfman)의 문학 작품 수용도 칠레 쿠데타의 기억과 결부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도르프만은 라틴 아메리카 전공자들에 의해 수용된 것은 아니다. 문학 작품, 연구서, 회고록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이 9권 번역되어 있는데, 『도널드 덕, 어떻게 읽을 것인가』(*Para leer al pato Donald*)를 제외하면 창비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다. 창비를 주도한 백낙청이 1990년대에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냈을 때, 도르프만과 친분을 쌓았고, 그를 초청할 정도로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백낙청 자신은 번역을 하지

4) 열린책들에 따르면, 『2666』은 총 15,000부 정도 팔렸다. 그러나 다섯 권으로 나뉘어 번역되었기 때문에 총 3,000부가 팔린 셈이다. 『야만스러운 탐정들』은 총 12,000부 정도 팔렸다. 이 작품은 두 권으로 번역된 판본과 한 권으로 번역된 판본 두 종류가 있으니, 총 4,000~5000부가 팔린 셈이다. 『칠레의 밤』은 9,000부 정도 팔렸고, 마찬가지로 칠레 쿠데타 서사인 『먼 별』도 3,000부 정도 팔렸다. 기타 다른 소설들의 판매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 덕분에 도르프만의 책이 꾸준히 번역되었다. 1998년부터 『우리집에 불났어』(*My House is on Fire*), 『싼띠아고에서의 마지막 왈츠』(*Últimos vals en Santiago*), 『체 게바라의 빙산』(*La nana y el iceberg*), 『죽음과 소녀』(*La muerte y la doncella*), 『블레이크 씨의 특별한 심리치료법』(*Terapia*) 등의 문학 작품이 번역되었다. 물론 도르프만의 상당수 작품이 칠레 쿠데타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칠레 쿠데타 서사가 출판사의 작품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번역된 도르프만의 책들이 한국에서 칠레 문학에 대한 특별한 기대지평선을 강화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더구나 창비는 네루다의 수용과 관련해서 특별한 역할을 한 출판사이기 때문에 도르프만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III. 네루다와 한국의 ‘불온한’ 지식 계보

네루다는 1980년대 이전에 한국에 소개되고 번역된 사실상 유일한 칠레 작가이고, 스페인어권 시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집이 번역된 작가이며, 한국의 작가들과 다른 언어권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먼저 발견한 작가이다. 비록 『모두의 노래』는 2016년에야 고혜선에 의해 번역되었지만, 이는 판권 계약이 원활하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다. 최소한 15년 이상 전부터 여러 출판사의 판권 확보 시도가 있었다. 너무 방대한 분량의 시집이라 상업성 부분에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여러 출판사의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한국에서 네루다의 위상을 짐작하게 해준다. 심지어 그의 「시」(*La poesía*)와 「이 밤 나는 가장 슬픈 시를」(*Puedo escribir los versos más tristes esta noche*)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김현균 2006, 209). 또한 네루다는 수용 연구도 이루어진(우석균 1997; 김현균 2006) 흔치 않은 사례이다.

그런데 네루다의 발견은 북한이 먼저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김재용이 발굴한 자료에 따르면, 이태준은 1951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문학에 대한 좌담회에서 네루다를 만났다(김재용 2004, 391-392). 그리고 이듬해 출간된 중

국 기행기『위대한 새중국』에서 네루다를 “미제와 자기 나라 반동정권의 갖은 박해 속에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싸워온 시인”, “제2차 세계평화옹호대회에서 영예로운 평화상을 탄 시인”(이태준 2011, 71)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이기영도 자전적 수기『태양을 따라』에서 네루다와의 만남을 회고한다. 만년인 1982년부터 쓰기 시작했으며, 사후에 출간되었다고 하는 수기로(김홍균 2010, 82), 1952년 소련에서 열린 니콜라이 고골 서거 100주년 기념 제전에서 네루다를 만났다는 일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네루다가 “반체투사로 혁명시인으로 세계진보적 작가들 속에 널리 알려진 사람”(재인용, 김홍균 2010, 91)이라고 예찬했다. 1954년에는 평양에 있는 국립출판사가『혁신의 노래』라는 총 168쪽짜리 네루다 시집을 간행했다(박현규 2016, 22). 스페인어권 문인 중에서는 사실상 세르반테스만 알려져 있던 시대에 벌써 네루다에 대해 이렇게 커다란 관심을 보인 점, 그것도 한국전쟁 중에 관심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이념이 북한의 네루다 수용에서 크나큰 고려 요소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한다.⁵⁾

반면, 남쪽에서는 오히려 이념이 네루다 수용에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뼈까소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냉전 속의 열전’이었던 한국전쟁 시기에 남한에서 공산주의자 시인을 소개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뼈까소는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극 소식을 접하고, 1951년 한 전시회에 <한국의 학살>을 출품했다. 1950년 10월 황해도 신천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미군이 의해 자행되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작품 소식을 접하자, 남한 문인 및 미술가들은 미술 비평가이자 화가인 김병기를 대표로 하여 「피카소와의 결별」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뼈까소에게 발송까지 했다. 선언문의 요지를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게르니카>의 뼈까소에 감격한 시절이 있었지만,

5) 다수의 네루다 관련 해의 기록은 그의 시가 1951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번역되었다고 말한다(김현균 2006, 211). 그러나 남한과 북한 어느 쪽에서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출처는 기억나지 않지만, 필자는 오래전에 네루다 시가 1951년에 남한에서 번역된 것처럼 읽히는 짝막한 대목을 접한 적이 있다. 당시 백낙청을 비롯한 몇 분에게, 또 최근에는 김재용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결국 어느 쪽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월·재복 작가들이 네루다를 높이 평가했으니 북한에서 번역되었으리라고 짐작할 뿐이다.

한국 현실을 왜곡한 <한국의 학살>의 뼈까소와는 결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정영목 1996, 241). 그때부터 뼈까소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불온한’ 화가 취급을 받았다. 1960년대에는 “어린이에게 인기있었던 ‘피카소’라는 상표의 크레파스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정영목 1996, 242)지는 일도 있었고, 1977년에 일본 여행 중이던 어느 인사는 미대생 아들에게 뼈까소 화집을 보내주면서, 사전에 <한국의 학살>을 검정색 사인펜으로 지워버렸다(정영목 2001, 1). 남한이 이념적으로 얼마나 경직된 사회였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들이다. 따라서 네루다 같은 ‘불온한’ 시인의 수용이 기대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인 김수영은 1968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네루다 시 6편을 번역하였다. 번역된 시는 「고양이의 꿈」(Sueño de gatos), 「유성」(Planeta), 「야아, 얼마나 밑이 빠진 토요일이냐!」(¡Ay qué sábados más profundos!), 「도시로 돌아오다」(Regreso a una ciudad), 「다문 입으로 파리가 들어온다」(Por boca cerrada entran las moscas), 「말들」(Caballos)이다. 1967년 미국 문학지 《엔카운터》(Encounter) 12월호에 영역된 네루다의 시 12편 중에서 고른 것이다. 김수영이 영어를 잘했고, 생계를 위해 중고 서점의 영어 문예지들을 뒤적여 신문사와 출판사들에게 번역 제안할 거리를 발굴해야 했고(최하림 2018, 239), 《엔카운터》가 어느 순간부터 정기 구독을 할 정도로 중요한 번역 원천이었기에 네루다를 발견할 수 있었다.

김수영은 네루다를 소개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적었다. 또, 사르트르가 수년 전부터 노벨문학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네루다 1968, 183). 그러나 《엔카운터》의 시들이 전적으로 만족스러웠을 것 같지는 않다. 1968년의 김수영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순수문학파의 대표 격인 이어령과 한국 문단을 뒤흔든 ‘문학의 사회참여’ 논쟁을 벌일 정도로 전투적이었다(최하림 2018, 389-395). 그런데 《엔카운터》의 시들은 참여시와는 거리가 있었다. 『에스트라바가리오』(Estravagario, 1958)의 시 7편과 『충만한 힘』(Plenos poderes, 1962)의 시 5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게다가 미국 역자는 네루다의 “가을색”(autumnal manner)과 “우리 서정시 전

통에 근접한, 별난 개인적 문체”(a quirky personal style, closer to our own lyric tradition)가 선정 기준이었다고 밝히고 있다(Neruda 1967, 3). 더구나 《엔카운터》는 비밀리에 CIA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었고(Franco 2002, 32), 미국공보원(USIS)이 미국식 자유주의를 확산시키려는 문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에 정책적으로 보급한 잡지였다(박지영 2012, 341). 김수영은 4.19혁명 직후부터 이미 《엔카운터》보다 국내 잡지를 더 많이 보았으며(김수영 2018b, 「밀물」, 98),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천착한 《창작과 비평》의 백낙청 같은 젊은 비평가들에게 호감을 느꼈으며(최하림 2018, 385), 《엔카운터》와 마찬가지로 미국공보원이 보급하는 잡지였지만 좀 더 진보적인 《파르티잔 리뷰》(*Partisan Review*)로 애독자가 옮겨간 다음이었다(조현일 2012, 313).

그렇다고 김수영이 네루다에게 크게 실망했을 것 같지도 않다. 김수영의 네루다 소개를 보면 그의 정치 활동과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다룬 『모두의 노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네루다 1968, 183). 또 J. M. 코헨이 《엔카운터》 1959년 2월호에 쓴 “Since the Civil War: New Currents in Spanish Poetry”를 이듬해 《현대문학》에 ‘내전이후의 서반아시아’이라는 제목으로 4월호와 5월호에 나누어 번역한 바 있었다. 코헨은 내전 이후 침체된 스페인 시가 1948년에 일시적으로나마 부흥한 것은 미겔 에르난데스(Miguel Hernández)의 유산 덕분으로 치부하고(코헨 1960, 296), 네루다가 그에게 시적으로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코헨 1960, 294). 네루다와 공화파 시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인 계보에서 의미심장한 일은 공화파를 적대시하지 않는 글을 4.19혁명 무렵에 번역했다는 점이다. 스페인내전은 발발 당시부터 이미 동아시아에도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중일전쟁 중이던 1938년 일본을 상대로 치열한 방어전을 펼친 우한(武漢)은 ‘동방의 마드리드’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였다. 1951년에 네루다를 발견하게 될 월·재복 작가들은 일제 강점기 때 KAPF(Korea Artist Proleta Federatio)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니, 이들은 당연히 공화파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게르니카>의 뼈까소도 일제 강점기 때 유사한 맥락에서 알려져 있었으니 말이다. 해방공간에서

혁명을 부르짖던 임화의 시에 매료된 적이 있을 정도로 초기부터 참여적 성향을 지닌 김수영이었으니, 코헨의 글에서 자신과 같이 ‘불온한’ 네루다를 눈여겨보았다가 1968년 그의 시를 번역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수영의 ‘불온함’의 정체가 좌파 이념은 아니다. 김수영은 한국전쟁 중에 인민군에 차출되었지만, 탈출을 감행한 반공포로 출신이다. 그의 ‘불온함’의 정체는 이승만 독재를 붕괴시킨 4.19혁명을 겪으면서 극적으로 표출된 급진적 자유주의, 아니 해방의 자유주의였다. 1960년의 시 「가다오 나가다오」에서 김수영은 “이유는 없다—/나가다오 너희들 다 나가다오/너희들 미국인과 소련인은 하루바삿 나가다오”(김수영 2018a, 209)라고 말하고 있다. 분단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자, 이 체제를 낳은 냉전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날카롭게 드러난 대목이다. 김재용은 남북 분단과 근대성에 대한 고민이 김수영 시 세계의 커다란 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김재용 2012, 165). 첫 번째 고민이 「가다오 나가다오」에 진하게 배어있다면, 두 번째 고민은 한국 문학에는 현대가 없어서 파리로 가고 싶다는 냇두리(최하림 2018, 342)에서 극명하게 표출된다. 현대가 없다는 냇두리는 옥파비오 빠스(Octavio Paz)의 노벨문학상 수상연설 「현재를 찾아서」(En busca del presente)의 다음과 같은 대목을 연상시킨다. “아메리카의 스페인인인 우리에게, 진정한 현재는 우리들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이 살던 시간이었습니다. 뉴욕, 파리, 런던의 시대였습니다.”(Paz 1990).

김수영은 이런 종류의 동시대성에 대한 갈등을 냉전체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조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제3세계 의식에서 엿본 것 같다. 『들어라, 양키들아』(*Listen, Yankee*)를 쓴 찰스 라이트 밀스(Charles Wright Mills)의 열렬한 예찬자였기 때문이다. 밀스는 미국 엘리트 집단의 공고화, 미국 사회의 불평등,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지도 모를 냉전체제에 비판적 의식을 지니고 있던 사회학자였다. 쿠바 혁명정부 지도급 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닌 CBS 특파원 로버트 태버(Robert Taber) 덕분에 1960년 8월 쿠바를 방문하여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혁명가, 지식인, 관리, 기자, 교수 등과 인터뷰를 했고, 그 결과

물이 『들어라, 양키들아』이다. 라파엘 로하스에 따르면, 그는 쿠바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하지만, 뉴욕의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연구를 통해, 또 자신의 저서 『파워 엘리트』(*The Power Elite*, 1956)가 1957년 멕시코에 번역, 출판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 빠블로 곤살레스 까사노바(Pablo González Casanova) 등의 멕시코 친구들을 통해 라틴아메리카를 접했다. 『들어라, 양키들아』가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를 당시의 평균적인 미국인에 비해 한층 진보적인 시각으로 서술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Rojas 2014, 10-13).

책은 1961년 1월에 나오지만, 그 직전인 12월 1일에 책의 일부가 《하퍼스 매거진》(*Harper's Magazine*) 12월호에 실렸다. 그리고 그 전문이 1961년 1월 신일철에 의해 번역되어 《한국일보》에 4회에 걸쳐 실렸다. 미국에서 『들어라, 양키들아』가 40만부나 팔리고, ‘쿠바를 위한 공정한 활동 위원회’(Fair Play for Cuba Committee) 결성에 정당성을 부여할 정도의 역할을 한 덕분인지(이창희 2008, 89-90), 같은 역자에 의해 완역되어 1961년 4월 14일 간행되었다. 그리고 김수영은 동년 5월 9일 《민족일보》에 기고한 「저 하늘 열릴 때 — 김병욱 형에게」에서 쿠바와 카스트로를 언급했다. 4.19혁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장차 남과 북, 미국과 소련의 갈등을 넘어 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견지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카스트로도 쿠바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수영 2018b, 244-247). 일주일 후 장차 한국을 더 강고한 친미 반공 국가로 만들 군부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러나 김수영은 6월에 《사상계》에 『들어라, 양키들아』의 서평을 썼다. 밀스가 미국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 절규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 데 대해(라이트 밀스 1961, 7), 김수영은 “전 세계의 후진국가들은 너무나도 유사한 공통적 질곡하에 놓여”(김수영 2018b, 253) 있다고 화답했다.

『들어라, 양키들아』의 간행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전의 일이었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개념을 빌자면, 한국인 사이에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상상의 지리(imagined geographies)가 채 형성되기

도 전에 책이 간행된 셈이다. 물론 당대의 한국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알고 있었을까 싶다. 4.19혁명에서 5.16쿠데타에 이르는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자유로는 한국의 이념 지형을 뒤흔들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동일시하는 지성인 계보를 형성했다. 1980년대에 두 차례, 1990년대에 한 차례, 2000년대에 한 차례 여러 번역자가 이 책을 다시 번역했다. 심지어 군부독재의 억압을 피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발간한 경우들도 있고, 1985년에 나온 번역본은 금서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김봉석 2019, 118-122). 이만열, 김수행, 김남주, 문부식 등이 한때 혹은 평생 동안 이 책을 소중히 생각했고, 진보적 군인과 노동자들이 이 책을 찾기도 했다.

1968년 김수영의 네루다 번역은 《창작과 비평》이 창간되고 최초로 외국 문학 작품이 번역된 사례였다.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 때문에 이 ‘불온한’ 시인의 번역을 감행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창작과 비평》 창간호에는 백낙청이 번역한 밀스의 「문화와 정치」(Culture and Politics)가 실려 있고, 이 글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었다(라이트 밀스 1966). 네루다를 통해 제3세계로서의 라틴아메리카를 더 많이 소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 직전 해인 1967년에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Miguel Ángel Asturias)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신구 문화사가 여러 역자를 동원하여 그의 작품들을 번역했고, 김수영도 『대통령 각하』(*El Señor Presidente*)를 번역한 4인 중 하나로 참여했다.⁶⁾ 국내에서도 네루다 역시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번역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네루다와 라틴아메리카 수용 양상을 보면, 한국과 라틴아메리카를 동일시하는 지식인 계보는 이미 1960년대에 형성된 것이 분명하다.

6) 『김수영 평전』에는 김수영이 1968년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대통령 각하』를 번역 중이었다고 되어 있다(최하림 2018, 414).

IV. 1980년대의 이념적 급진화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동일시

남한에서 네루다 첫 시선집은 ‘네루다 서정시집’이라는 제목으로 1971년 임중빈에 의해 이루어졌다. 1971년 10월 23일, 즉 네루다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발표되기 이틀 전에 간행되었으니, 수상 소식 타전 오래 전부터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이었을 것이다. 임중빈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사이에 정치적 사건들에 휘말리고 필화까지 겪었을 정도로 급진적인 문학비평가였기에(고명철 2010, 193-194), 네루다 첫 시선집이 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예사롭지는 않다.

그다음으로 네루다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해야 할 사람은 아무래도 시인 김남주이다. 1969년 대학에 입학한 시인 김남주는 대학 시절 소위 이념 서적을 섭렵했다. 그리고 김수영에 비해 훨씬 더 라틴아메리카에 관심을 보였다. 그 관심과 치열한 삶과 전투적 시 덕분에 얻은 별명이 ‘한국의 체 게바라’였을 정도이다. 그의 애독서 중에 《창작과 비평》과 『들어라, 양키들아』가 있었고,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수영과 네루다가 첫손가락에 꼽혔다. 김수영이 번역한 6편의 시 중에서 「야아, 얼마나 밀이 빠진 토요일이냐!」는 두고두고 암송할 수 있었다고 하며(김남주 2015, 58), 임중빈의 네루다 시선집도 독파했고, 네루다의 삶과 시 세계를 다룬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을 읽고」(김남주 2015, 127-149)도 남겼다. 그러나 압권은 하이네, 브레히트, 네루다의 시들을 번역한 시선집 『아침저녁으로 읽기 위하여』이다. 1988년에야 출간되었지만, 수감 중이던 1980년부터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스페인어를 몰라 영어 번역과 일어 번역 텍스트에 많이 의존했지만, 서영 사전과 스페인어판 텍스트도 참조했을 정도로 번역에 공을 들였다(김현균 2006, 215).

김남주는 유신 때인 1979년에 이미 간첩으로 몰려 투옥되었고, 실제로 급진적 이념의 소유자였다. “계급해방이 없이는 민족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강대석 2004, 161) 그의 신념은 한국 사회에서 용인되기 힘든 주장이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1980년 발발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시인이 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참혹한 진압에서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의 이념적 급진

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이념 지형에는 1960년대와는 몰라보게 뚜렷해진 제3세계 의식이 있었다. 그는 미국의 사회학자 리오 휴버먼의 『인간의 세속 재산』에 언급된 미 해병대 장교 새뮤얼 버틀러의 양심 고백을 주목했다. 멕시코, 아이티,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에서 자신이 수행해야 한 일들을 열거했고, 미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도 동일한 일을 했다고 고발하는 내용이었다(김남주 2015, 71-72). 김남주가 내린 결론은 미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군대를 파견하고 주둔시키면서 꼭두각시 정권을 수립하여 자국의 물질적 이익을 관철시켜” 왔으며, “제3세계 국가의 민중들이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요구하면 그곳이 어디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서 짓밟아버렸다”는 것이었다(김남주 2015, 72).

물론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동일시나 제3세계 의식의 형성을 김남주만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970년대에 헬터 까마라를 비롯한 해방신학자들의 책이 여러 권 번역되었고, 종속이론도 제3세계 의식뿐만 아니라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참조 이론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문학에서도 《창작과 비평》 1979년 가을호는 ‘제3세계의 문학과 현실’이라는 특집을 기획하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관련해서도, 1977년에는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도 번역되었다. 또 1982년의 글이기는 하지만, 거칠게나마 네루다와 보르헤스를 각각 진보적인 문학과 서구화된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구분하는 안목도 생겼다(김종철 1982, 30).

주지하다시피 광주민주화운동은 이 흐름을 더욱 더 급진적으로 만들었다. 600명 이상이 사망하는 학살극이 벌어졌고, 반정부 시위가 더 과격하고 지속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고, 반미 감정도 눈에 띄게 확산되었다. 한국전쟁 때 군사작전권이 주한 미군에 이양된 터라, 광주 군 투입과 신군부 집권을 막지 않은 미국에 대한 반감의 발단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라, 양키들아』가 재출간되고 금서가 된 까닭도, 이 책이 한국 지성인의 지적 계보에 반미 서적으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이재봉 2018, 141-142).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빌미로 정당화된 개발독재 국가, 전쟁에 참가해 공산화

를 저지한 미국을 구세주로 여기는 친미 국가, 미국의 요청에 따른 베트남 파병(1964-1973)조차 당연시된 국가는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제5공화국의 강력한 억압 체제하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식은 여전히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종속이론과 해방신학은 그나마 각각 학문과 종교의 보호막 안에서 연구서와 번역서의 출판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그러나 1980년대 금서 목록에 대한 연구를 보면 쿠바혁명 관련 책들은 당연히 금기였다. 프란츠 파농의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과 빠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처럼 소위 운동권 학생들의 정전들도 이 목록에 당연히 올라있다. 게다가 놀라운 점은 볼리비아의 신학자이자 게릴라 네스포르 빠스 사모라(Néstor Paz Zamora)의 『동지를 위하여』(*Testimonio: Cartas a Cecilia. Diario de Campaña*), 니카라과 민족해방군 오마르 까베사스(Omar Cabezas)의 『타오르는 산』(*La montaña es algo más que una inmensa estepa verde*), 마가렛 랜들(Margaret Randall)의 『산디노의 딸들』(*Sandino's Daughters*)도 이 목록에 들어있다는 점이다(정종현 2015, 85-88). 니카라과와 볼리비아처럼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소한 국가 관련 책들까지 읽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에 본격화된 칠레 문학 수용은 결국 이러한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동일시 현상이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도 혁명이 필요하다는 인식, 라틴아메리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혁명은 막대한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칠레 쿠데타 서사의 선호로 이어진 것이다. 199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전공자들이 주로 1970년대 말이나 1980년대에 대학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는 급격한 대학 팽창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인구 증가, 국민소득 향상, 한국인의 교육열에 영합한 독재정부의 포퓰리스트 정책이 맞물린 결과였다. 그 결과 스페인어권 관련 학과들도 급증했다.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 외대 스페인어과 한 곳뿐이었으나, 1980년대에 무려 10개 대학에 관련학과가 신설된 것이다. 현재는 14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있으니, 1980년대의 양적 증가는 놀라운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 라틴아메리카 문학 강좌나 연구는 뒷전

이었다. 우선 언어에 대한 수요가 더 커서 스페인어 강좌가 커리큘럼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스페인 문학과 문화 강좌가 많았다. 당시 기존 교수들 중에서 라틴아메리카 전공자가 별로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당시 관련 학과 학생들은 급진화된 사회 분위기로 해서 스페인보다 라틴아메리카에 더 관심을 두었고, 학위를 마친 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적어도 한동안은 그 기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칠레 쿠데타 서사에 대한 선호는 1960년대에 뿌리를 둔 현상이고, 1980년대에 예비된 현상인 것이다.

V. 나아가면서

이 글을 쓰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칠레 문학 수용 과정에서의 칠레 쿠데타 서사 선호 현상은 라틴아메리카 문학 연구자들과 출판사들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수영과 김남주의 네루다 수용이나 1970년대 말의 제3세계 문학 연구 등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간헐적인 지시대상으로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나 문학에 현대가 없다고 한탄하면서도 민족문학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김수영의 딜레마가 올림이 컸고, 『들어라, 양키들아』가 한국의 지성인 계보에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상상의 지리 구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김남주가 1980년대 초에 감옥에서 네루다를 번역할 때, 『모두의 노래』도 탐독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상징적으로 보였다. 한국어 번역본은 없던 시절이었기에, 그 방대한 시집을 읽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시포스의 도전처럼 느껴졌다. 1960년대의 『들어라, 양키들아』 번역, 네루다 시 번역, 냉전체제와 분단체제에 대한 비판의식, 제3세계 의식이 김수영에 의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면, 김남주는 그 관계망을 확실히하고 튼튼하게 드러냈다. 더구나 그 자신이 삶과 문학을 통해 1980년대의 이념적 급진화를 예비함으로써 1960년대와 1980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물론 이 계보가 한국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수용하는 방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대학 시절을 보낸 미래의 전공자들이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칠레 문학을 수용할 때 칠레 쿠데타 서사를 배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계보가 적어도 한국의 지적 계보에서 튼튼한 축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제3세계’라는 용어가 이제는 낯설고 케케묵은 것처럼 보이지만, 스페인어조차 못하고 라틴아메리카 문학에 대해서도 거의 지식이 없던 이들이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공통의 역사를 직관적으로 발견한 수용사가 존재하는 판국에, 오늘날 이 땅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가르치고 수용하는 연구자들이 분과학문의 틀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이다.⁷⁾

252

253

참고문헌

- 강대석(2004), 『김남주 평전』, 한얼미디어.
- 고명철(2010), 『문학, 전위적 저항의 정치성』, 케포이북스.
- 김남주(2015), 『김남주 산문 전집』, 맹문재 엮음, 푸른사상.
- 김봉석(2019), 「C. 라이트 밀스와 피터 L. 버거 저작의 국내 번역 수용」, 《서구 사회학과 탈서구중심주의》, 한국이론사회학회 발표집, pp. 117-146.
- 김수영(2018a), 『김수영 전집1: 시』, 3판, 이영준 엮음, 민음사.
- _____(2018b), 『김수영 전집2: 산문』, 3판, 이영준 엮음, 민음사.
- 김재용(2004), 「한국전쟁기의 이태준-『위대한 새중국』을 중심으로」,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pp. 381-398.
- _____(2012), 「김수영 문학과 분단극복의 현재성」, 김명인·임홍배 엮음, 『살아있는 김수영』, 초판 2쇄, 창비, pp. 163-194.
- 김종철(1982), 「제3세계의 문학과 리얼리즘」, 백낙청·구중서 편, 『제3세계 문

7) 이 글은 한국 문학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게 되다 보니 필자로서는 한계를 많이 느꼈다. 김재용(원광대)의 북한 문학과 세계문학에 대한 성찰과 정보, 박수연(충남대)의 김수영 관련 자료 제공과 조언, 김현균(서울대)의 네루다 수용에 관한 폭넓은 글, 최영균(미시간대 박사과정)의 자료 제공 덕분에 어설프게나마 완성할 수 있어서 깊이 감사를 표한다.

- 학문』, 한빛, pp. 25-75.
- 김현균(2006), 「한국 속의 파블로 네루다-수용 현황과 문제점」, 《스페인어문학연구》, No. 40, pp. 207-225.
- 김홍균(2010), 「민촌 이기영의 자전적 수기 “태양을 따라”」, 《월간중앙》 10월호, pp. 80-96.
- 네루다, 파블로(1968), 「파블로 네루다 시 6편」, 김수영 옮김, 《창작과 비평》, Vol. 3, No. 2, pp. 175-183.
- 라이트 밀스, 찰스(1961), 『들어라, 양키들아』, 신일철 옮김, 정향사.
- (1966), 「문화와 정치」, 백낙청 옮김, 《창작과 비평》, Vol. 1, No. 1, pp. 110-118.
- 박숙자(2012), 「로컬리티의 재구성: 조선/문학/전집의 사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No. 56, pp. 245-270.
- (2014), 「100권의 세계문학과 그 적들: 식민/탈식민 세계문학전집의 조건과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No. 62, pp. 77-113.
- 박지영(2012), 「번역과 김수영의 문학」, 김명인·임홍배 엮음, 『살아있는 김수영』, 초판 2쇄, 창비, pp. 337-362.
- 박현규(2016), 『연변 소재 한글자료 조사』, (보고서), 국립한글박물관.
- 서울대학교 편(2005), 『권장도서 해제집』, 서울대학교출판부.
- 스카르메타, 안토니오(2004),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우석균 옮김, 민음사.
- 우석균(1997), 「파블로 네루다의 재평가: 자연의 시인으로서의 파블로 네루다」, 《외국문학》, No. 53, pp. 192-211.
- 이재봉(2018), 『문학과 예술 속의 반미』, 네잎클로버.
- 이창희(2008), 「미국 신좌파와 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보》, Vol. 42, No. 3, pp. 75-95.
- 이태준(2011), 『위대한 새중국』, 김재용 편찬, 역락.
- 장정일(2011), 「MB의 연설 원고를 쓰는 그 작가는 누구인가?」, 《프레스이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65861>, 2019년 10월 검색.
- 정영목(1996), 「피카소와 한국전쟁」,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No. 8, pp. 241-258.
- (2001), 「미술과 정치: 피카소의 한국전쟁 관련 작품과 한국, 일본의 추상미술, 1950-1960」,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72304/3/01.pdf>, 2019년 11월 검색.

- 정종현(2015), 「투쟁하는 청춘, 번역된 저항: 1980년대 운동세대가 읽은 번역 서사물 연구」, 《한국학연구》, No. 36, pp. 81-124.
- 조영일(2010), 「우리는 과연 세계문학전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작가세계》, Vol. 22, No. 2, pp. 292-356.
- 조현일(2012), 「김수영의 모더니티관과 《파르티잔 리뷰》」, 김명인·임홍배 엮음, 『살아있는 김수영』, 초판 2쇄, 창비, pp. 306-336.
- 최하림(2018), 『김수영 평전』, 실천문화사.
- 코헨, J. M.(1960), 「내란이후의 서반아시단(상)」, 김수영 옮김, 《현대문학》, No. 64, pp. 292-300.
- 《한겨레21》(2006), 「전집 시장, 흠소핑이 주무른다」, No. 601, 3월 17일,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16351.html, 2019년 9월 검색.
- 《한겨레신문》(2010), 「세계문학전집 ‘제2의 전성기’」, 1월 12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98212.html>, 2019년 9월 검색.
- 황병하(1992), 『반리얼리즘 문학론』, 열음사.
- Donoso, José(1991), “José Donoso: la literatura que se señala a sí misma”, Juan Andres Piña, *Conversaciones con la narrativa chilena*, Santiago: Editorial Los Andes, pp. 41-73.
- Franco, Jean(2002), *The Decline and Fall of the Lettered City: Latin America in the Cold War*,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Herralde, Jorge(2005), *Para Roberto Bolaño*, Buenos Aires: Adriana Hidalgo editora S. A.
- Neruda, Pablo(1967), “Twelve Poems by Pablo Neruda”, translated by Alastair Reid, *Encounter*, Vol. XXIX, No. 6, December, pp. 3-9.
- Paz, Octavio(1990), “En busca del presente”, <https://www.ersilias.com/discurso-de-octavio-paz-al-recoger-el-premio-nobel-del-1990/>, 2019년 11월 검색.
- Rojas, Rafael(2014), “El aparato cultural del imperio. C. Wright Mills, la Revolución Cubana y la Nueva Izquierda”, *Perfiles Latinoamericanos*, No. 44, pp. 7-31.
- Sarrochi, Augusto C.(1992), *El simbolismo en la obra de José Donoso*, Santiago: Editorial La Noria.

Siskind, Mariano(2014), *Cosmopolitan Desires: Global Modernity and World Literature in Latin America*, Evanston, Illinoi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우 석 균

서울대학교
wsk65@snu.ac.kr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14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3일

The Reception of Chilean Literature: Chilean Coup Narrative and Korean Intellectual Genealogy

Suk-Kyun Woo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k-Kyun Woo(2019), "The Reception of Chilean Literature: Chilean Coup Narrative and Korean Intellectual Genealogy",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3), 231-257.

256

257

Abstract The Chilean coup has been remembered in Korean society with astonishing continuity and intensity. There is even a horizon of expectation for Chilean literature, which is based on the Chilean coup narrative. Therefore, the publishers also consider it when they select works to translate, and the academics don't reject the trend. But the roots of this phenomenon date back to 1968, when Soo-Young Kim translated the poetry of Neruda for the first time, and before that, discovered Charles Wright Mills' *Listen, Yankee*. A specific intellectual genealogy that embraces Latin America and Latin American literature was determined in that moment. This genealogy was taken over by Nam-Ju Kim who made it more visible. Considering that he was an intellectual and poet who had already prepared for the ideological radicaliz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1980s, he became a bridge linking the generation of 1980s to the intellectual genealogy of the 1960s when the interest for Latin American knowledge and literature was increased. The preference for Chilean coup narrative, then, is not simply due to the shared experience between the military dictatorships of South Korea and that of Chile, but rather to the intellectual genealogy of equating modern Korean history with Latin American history.

Key words Reception of Chilean Literature, Chilean Coup Narrative, Soo-Young Kim, Listen, Yankee, Nam-Ju Kim